

日 전국 배포 '아베노마스크' 서도 이물질

임산부 배포 불량 마스크 이어 벨레·머리카락·실밥 등 확인 마이니치 "정부 공개 않고 숨겨" 배포 중단 검토 안해 논란 확산

일본 정부가 임산부를 위해 배포한 천 마스크에서 불량품이 속출해 배포가 중단된 가운데 전국 모든 가구에 배포되는 천 마스크에서도 벨레 등의 이물질이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든 가구에 배포하기 위해 포장을 시작한 200만장의 천 마스크

에서 벨레나 머리카락, 실밥 등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곱팡이가 피어 있는 등의 문제 사례 200건이 18일 시점에 확인됐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반대 배포된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임산부를 위해 50만장 규모로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천 마스크에서 오염물이 묻어 있거나 벨레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계속 보고되자 배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산부용 마스크 중 불량량은 1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7천870장에 달

했다며 마스크 배포를 일시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할 뜻을 밝혔다. 가토 후생상은 임산부용 마스크와는 별도로 전국 5000만 가구에 2장씩 배포되는 마스크에서 발견된 불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스크 배포를 담당하는 후생성 경제과는 임산부용 마스크 외 불량 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마이니치신문의 문의에 "회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제과는 지난 17일 시작된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를 배포하는 작업도 "현시점에서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서서 밀어붙인 천 마스크 전국 배포 사업은 '아베노마스

크'라고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베의 마스크라는 뜻인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발음을 살린 일본 언론의 조어다. 전국 배포에 앞서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등에서 먼저 천 마스크를 받은 이들은 '마스크가 작아서 말할 때 귀가 풀린다', '귀가 아프다', '빨면 줄어든다' 등의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임산부를 위해 배포한 마스크에서 불량품이 대거 발견돼 배포가 중단된 데 이어 모든 가구에 배포되는 마스크에서 발견된 불량을 숨긴 것으로 알려져 아베노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끝모를 폭락...확박 찬 텍사스 저장 탱크

2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보팩터미널 디어파크에 있는 석유저장시설의 탱크들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치면서 미국산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튿날인 이날도 국제유가가 대폭락했다. /연합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금값 온스당 3천달러까지 오를 수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금 가격이 18개월 이내에 온스당 3000달러(370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ofA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비트머와 프란시스코 블랜치 등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을 찍어낼 수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8개월 내 금 목표가를 종전 온스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는 위축되

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통화 정책으로 화폐 발행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은 금을 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와 내년 평균 금 가격도 온스당 1695달러와 2063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BofA는 달러화 가치 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인도 및 중국의 귀금속 수요 약화 등은 금 값 상승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집계 따르면 22일 오전 8시 55분(한국시간) 현재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690.04달러에 형성됐다. /연합뉴스

"알리바바, '유력 차기 후보' 장관 CEO 조사"

인터넷 스타에 부당이권 의혹 인사책임자 내부망서 공개 질책

알리바바그룹이 자사 플랫폼의 인터넷 스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장관 테마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중국 인터넷 경제 매체 투자계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의 최고인사책임자(CPO) 동원홍은 지난 18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장관이 가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회사 명예에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깊이 반성하고 마땅히 모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소문에 관해서 회사 측은 정식으로 팀을 꾸려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 최고인사책임자의 글은 같은 날 장 최고경영자가 회사 내부망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 자신에 대한 조사를 '간정'한 이후 나왔다. 중국 매체들은 알리바바의 조사 조정이 장 최고경영자의 개인 문제보다는 장 최

고경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모델 출신 '왕홍'(중국의 인터넷 유명인)인 장 다이추에 부당하게 이익을 줬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명 왕홍이던 장다이는 알리바바의 쇼핑 플랫폼에서 거액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인기 쇼핑 호스트로 급성장했다. 공교롭게도 장다이의 소속사인 루한에는 알리바바 측이 7.4% 지분을 투자한 상태여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유독 장다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장 최고경영자의 부인은 지난 17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유명 인터넷 스타인 장다이를 향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다. 다시 한번 내 남편을 건드렸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창업자 마윈, 장용 현 회장에 이어 알리바바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력한 후계자 후보군에 속한 인물이던 장관 CEO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투자계는 전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 집단 매장

브라질 아마조니아 주 마나우스의 공동묘지에서 21일(현지시간) 신코로나19 사망자를 집단 매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겨진 코로나 사망자 11개국서만 2만5천명" NYT, 사망통계 분석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에 누락된 인원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확산한 11개국의 지난달 사망 통계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망 통계에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되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들의 숫자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추정했다. 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지난달 발생한 '초과 사망분'에서 코로나19 공식 사망자 수를 제하는 방식으로 '숨겨진 사망자'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스페인,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미국 뉴욕시,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이스탄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벨기에 순으로 적게는 약 300명부터 많게는 7300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일평균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뉴욕에서는 4배나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공식 사망자 수와 전체 사망자 수의 차이는 고의적인 축소보다는 제한된 진단검사 시행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해석했다. /연합뉴스

'한국사위' 美주지사, 트럼프에 재반격...한국진단키트 구매 공방

"한국 접촉 필요 없었다" 불만에 "州 자체 확보하라더니 비난"

코로나19 검사용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메릴랜드 주지사 간에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계 부인을 둔 '한국 사위'로 불리는 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검사 50만 회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공수'하는 데 성공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접촉할 필요가 없었다"고 언짢음을 내비치자 호건 주지

사가 다시 반격에 나서며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호건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MSNBC방송의 '모닝 조'에 출연, 한국 진단키트 구매와 관련해 "이것은 정확히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는 '주지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주지사들)이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완수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난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사 역량 확충은 주 정부의 몫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확보한 것인데 왜 비난을 들어야 하느냐는 반발인 셈이다.

전미주지사협회장을 맡은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19 테스트포스(TF)를 총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TF 인사들과 주지사들 간의 전날 화상회의를 거론한 듯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연방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평가 선로에서 벗어났다"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호건 주지사가 연방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따랐더라면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